

어부 대신 관광객... 흑산도 예리항에 파시골목

신안군 기본계획 용역 추진

우체국 뒷골목 210m

볼거리 갖춰 관광지 조성

흑산도는 대개 추석 직전부터 이듬해 봄까지 본격적 휴어철을 맞는다. 이 시기면 매일 조금 전후로 예리항 일대는 파시가 열리면서 북적인다. 몇 십년 전만해도 조기와 오징어 껍질이 술값으로 통용됐던 곳이기도 하다.

예리항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상악화 시 수많은 배들이 정박하면서 접포들이 큰 호황을 누렸다. 한때 땅 1평에 600만~700만원을 부를 정도였다가 게 주민들 설명이다. 하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흑산도의 밤은 어두컴컴해졌다.

신안군이 흑산도 예리항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예리항 일대를 파시골목으로 조성, 주·야간 볼거리를 갖춰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2018 흑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흑산도 예리항 전경. 신안군이 파시골목을 조성,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관역 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내년도 흑산도 예리항 일대에 파시골목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사업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군의 회에 제출했다. 사업 대상지로는 예리항

우체국 뒷골목(210m) 일대다.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 상당수가 옛 흑산도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 추억의 이야기거리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자는 취지에서다.

흑산도 볼거리는 섬을 하나로 잇고 있는 25.4km의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진리 당산, 상라산(227m) 전망대를 거쳐 지리대 없이 절벽을 지나는 '하늘도로', 동백나무 군락, 정약전 사당(복성재), 최익현 유허비(지장암) 등 다양하다. 해안일주도로를 달리면서 볼 수 있는 아찔한 바다 풍경은 기본이다.

여기에 파시 골목을 추가해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춘 주·야간 관광지로 활용하면 주민 소득 증대 및 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안군 판단이다.

신안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문화특색사업'에 공모, 국비를 지원받아 파시골목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흑산도 예리에 주·야간 관광지로 파시 골목을 조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문화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흑산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년 음식·숙박업을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한국천일염수출협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천일염수출협회 제공>

전남 천일염 인도네시아 수출길 열렸다

천일염수출협회 박람회 참가 품질 향상·수출 협약

전남 천일염의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열렸다.

한국천일염수출협회(회장 민동성)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 인도네시아 소금공사인 PT.GARAM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금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 교류와 천일염 수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PT.GARAM은 정부산하 소금공사로 인도네시아 국내소금 생산·공급 및 수출을 담당하는 소금 공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금 생산량이 부족한 인도네시아에 국내 천일염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천일염수출협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박람회에 협회 소속 영백염전·영백솔트, 대상 신안천일염 등 5개사를 참가토록 해 천일염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수출협회는 또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소금업무 총괄책임자와 면담을 갖고 양국 소금산업 협력 방안과 국내 프리미엄 천일염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청장 일행의 영광 영백염 전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엔 자카르타신 소금총괄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영광 장난감 도서관 내달 6일 문 열어

영광에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연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600점의 장난감을 갖춘 장난감 도서관(사진)을 다음달 6일 개관한다.

장난감 도서관은 영광 여성문화센터 내 2층에 1억7300만원을 들여 101.1㎡ 규모로 조성됐다. 군은 영·유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장

난감, 전동자동차, 몬스터미, 키보드 등 300종(600점)을 보유하고 있다. 9세 이하 자녀를 둔 영광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1만원으로 다음달 7일부터 신청을 받아 매월 2회 빌릴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다양한 장난감을 갖추고 빌려줄 예정이라 자녀들 장난감 구입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신안군 흑산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우수'

신안 흑산면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2017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결과, 소각 부문 우수시설로 꼽혔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63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소각부문 우수시설로 선정돼 공로상을 수상했다.

신안의 경우 도서로 구성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읍·면별로 매립장과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인력, 조직, 예산,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도 매년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기울인 점이 인정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공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신안 증도 천년 숲길

'12월 걷기 좋은 길'

관광공사 '여행길 10선' 뽑혀

신안 증도 짙둥어다리와 소나무숲을 거쳐 갯벌센터로 이어지는 천년의 숲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올 겨울,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됐다.

2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2월의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신안 증도 모실길 3코스인 천년의 숲길을 비롯, 10개 코스를 뽑았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에 걸을만한 길로 추천한 신안 천년의 숲길은 순비기전 시관에서 짙둥어다리를 건너 바닷가 소나무숲에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을 걸어서 신



천년의 숲길 증도모실길 3코스

안갯벌센터에 도착하는 4.6km 코스다.

순비기전시관은 지역 특산물인 소금과 먹을거리, 천연염색 제품 등을 파는 곳으로, '순비기'는 염색식품 중 하나로, 천연 염색에 쓰인다. 짙둥어다리는 바다를 건

너는 650m 길이의 나무다리다.

짙둥어다리 아래 갯벌에서 노는 작은 계들과 보석처럼 반짝이는 우전해변을 따라 걷는 코스는 조용히 사색하기에 더없이 좋다. /김지욱기자 dok2000@

함평군 동함평산단 분양률 93% 돌파 와이제이씨와 136억 투자계약

함평군이 조성한 동함평일반산단의 분양률이 93.6%를 기록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에서 첨단세라믹 전문기업인 '와이제이씨'와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체 분양률 93.6%(산입용지 94.6%)를 기록했다.

와이제이씨는 이번 계약에 따라 136억 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2만125㎡ 규모로

제2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을 확대해 2019년 매출액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농공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와이제이씨는 전자부품 소성용 내화세라믹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함평산단은 총 사업비 735억원을 투자

해 2013년 6월 착공, 2015년 5월 준공했다.

산단 규모는 산업용지 48만9000㎡, 지원용지 1만2000㎡, 공공용지 23만7000㎡ 등 총 73만8000㎡ 규모다.

함평군 관계자는 "동함평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은학기자 hwang@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원 (평당 7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기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800만원(조정가)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4900만원 (조정가)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